「～ないまえ(前)に」節과 「～기 전(前)에」節

- 한일대조를 중심으로 -

안평호* · 김경수**
ahnph@sungshin.ac.kr

Contents

Ⅰ. 들어가기
Ⅱ. 본 논문의 연구목적
2.1. 한국어 母語話者의 입장에서 「(動詞)ない前に」가 문제가 되는 이유
2.2. 한국어의 「～기 전(前)에」에 대해서
Ⅲ. 「(動詞)ない前に」의 의미
3.1. 「マエ(に)」節에 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
3.2. 본 논문의 주장
3.2.1. 事態의 時間關係(前後關係)를 판단하는 基準(時)点이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
3.2.2. 「前」가 가리키는 시점을 기준으로 「S2 → S1」의 繼起關係를 나타내는 유형
3.3. 한국어의 「～기 전(前)에」가 나타내는 의미 再考
Ⅳ. 결론

Abstract

本論文では、韓国語の「～기 전(前)에」と、日本語の「(動詞)ない前に」を対象とし、その意味及び機能について考察を行った。考察の過程においては、各々の形式をめぐって、文法化という観点からも比較を行い、その結果を簡略にまとめている。考察の結果、日本語の「前(まえ)に」節は、大きく二つのタイプがある―ここでは、仮に＜(A)類型＞と＜(B)類型＞と呼ぶが―ことについて述べた上で、本論文の研究対象である「(動詞)ない前に」は、(A)類型に分類した。

なお、(B)類型をめぐっては、「前(まえ)」が指す時点と関連する社会通念に基づき、さらに二つのグループに分けら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について明らかにした。「S1-前(まえ)に,

* 성신여자대학교(일어일문학과 소속) 부교수. 일본어학 전공.
** 인하대학교 강사. 일본어학 전공.
이 논문은 성신여자대학교의 교내연구과제지원(자유과제)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09-2-11-005/1)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S2(S: sentence)」節に関する内容を簡略に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

(A)유형

「前(まえ)」が指す時点と 「S1」の事態が時間的に同時であるタイプ(=基準点が問題にならないタイプ)

(例) 子供にお金を払わない前に菓子を食べさせる。(=(2))

(B)유형

「前(まえ)」が指す時点を基準とし、「S2→S1」のような繼起關係を表すタイプ(=基準点が示されており、「~ないうちに」に交替可能かどうかによって、さらに二つの下位分類が可能なタイプ)

(例) 寝る前に歯を磨いた。(「~ないうちに」に交替不可能なタイプ)

(例) 夜が明ける前に目が覚めた。(「~ないうちに」に交替可能なタイプ)

Key Words : 「(動詞)ない前に」、「~기 전(前)에」、韓日對照、時間關係節、文法化
Nai Maeni Clause, Ki cen Ey,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rammarization

Ⅰ. 들어가기

필자는 아래에 제시하는 예문의 밑줄 부분과 같이 肯定形 또는 否定形의 어느 쪽으로 표현해도 논리적인 의미가 같은 예를 중심으로 그 성립조건 등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生産者の武田英一さん(37)は「農薬の除草剤を**使わない代わりに**、米ぬかや大豆かずを田にまいて、雑草が生えないように工夫している」と話すが、手作業での雑草取りが大変だという。(毎日 050215)[1)]

(2)スーパーで働いていますが、お客様のわがまま、非常識にはあきれかえる毎日です。(…中略…)子供に**お金を払わない前に**菓子を食べさせたり、オマケをいくつも開けて「買わないよ」と散らかして行きます。(毎日 011122)

(1)과 (2)의 밑줄 친 부분은 각각 「使う代わりに」와 「お金を払う前に」와 같이

1) (毎日 050215)는 인용한 문헌이 일본의 『毎日新聞』이라는 것과, 또한 기사가 실린 날짜가 2005年 2月 15日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예문 마지막 부분에 괄호로 표시하는 것은 예문의 출전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하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함.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肯定形의 술어 형태로 바꾸어도 논리적인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1)에서 논리적인 의미가 같다는 것은 肯定形 표현 및 否定形 표현 모두가 「실제로는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장의 미세한 어감까지도 완전히 같은 의미라는 것은 아니다. (2)도 肯定形, 否定形 모두가 「과자 값을 내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논리적인 의미가 동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2)와 같이 현대일본어의 「(動詞)ない前に」節을 대상으로 그 의미 및 기능에 대해 살펴보고 현대한국어와 비교,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Ⅱ. 본 논문의 연구목적

2.1. 한국어 母語話者의 입장에서「(動詞)ない前に」가 문제가 되는 이유

필자는 (2) 등과 같이 「(動詞)ない前に」節과 관련해서, 한국어 母語話者 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앙케트 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설문지 내용〉

○다음 문장의 문맥을 충분히 고려하여, 특히 밑줄 친 부분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옮기시오.

人間不信に陥っています。

スーパーで働いていますが、お客様のわがまま、非常識にはあきれかえる毎日です。購入して何日もたった商品、ほとんど残ってないほど食べてしまった商品を、「要らなくなったから」とか、「狂牛病が心配だから」とかいう理由で、返金してと持ってきます。特売時に買ったカレールーなどまでも返してきます。子供にお金を払わない前に菓子を食べさせたり、オマケをいくつも開けて「買わないよ」と散らかして行きます。

これに対して何の文句も言えない私たちの気持ちが分かりますか。注意した店員がいましたが、「辞めさせろ」とか「こんな店にはもう来ない」と脅かされます。

2) (1)과 같은 문장의 성립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拙稿(2008)를 참조하기 바람.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金銭授受を間違えないように、品質管理もしっかりやろうと私たち店員は努力しています。たまには間違えることもあるでしょうが、お客様も普通の常識を持つようお願いします。「お客様は神様ではありません」。そう思っているこのごろです。

(위 문장은『毎日新聞』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임.)

앙케트 조사의 목적은 학습자들이 「(動詞+)ない前に」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위 예시문은 조사 내용의 일부이다. 조사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 성신여자대학교 일어일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4학년), 30명
(일본어능력시험 1급 이상의 일본어 능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함)
△조사 방법: 설문지에 대한 응답(설문지에 해석을 작성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
△조사 시기: 2011년 10월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기본적으로 현대한국어(표준어)의 경우에는 (2)를 직역한 형태인 「(돈은 내지) 않기 전에」와 같은 표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韓日 兩 言語 사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일본어의 (2)는 한국어 母語話者들이 일본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는 구문 가운데 하나이다. 아울러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어 母語話者들에게도 (2)와 같은 표현은 「비논리적인 표현」 또는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부 방언이나 文語體的인 표현)」등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세한 조사결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 모어화자들의 응답 가운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잘못된 답변이 있었다.

① 「払う+ない+前(に)」를 구성하는 각 形態素를 한국어로 직역하는 방법의 번역
(예) 「돈을 내지 않기 전에」
②「払わない前に」를 문맥에 맞게 의역하는 방법의 번역
(예) 「아직 계산도 하지 않은 과자」,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먼저」 등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①은 한국어(표준어)의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으로, 부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번역 투(套)로 느껴지는 잘못된 번역이다. 한편 ②는 ①과 같은 직역의 부자연스러움을 극복하기 위해 의역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動詞)ない前に」와 관련된 필자의 앙케트 조사 과정에서 조사된 용례 가운데 일부를 아래에 소개하겠다.

(3)私は若くして嫁いだ。(…中略…)嫁、妻、母としての務めはもう十分に果たしてきた。これからは福祉のお世話ばかりになることだろうが、人間としての尊厳を**失わない前に**この世を去りたいと思う。(毎日020217)

(4)言ってみれば、機関投資家が輪になって爆弾の手渡しゲームをやってい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か。10年も**たたない前に**散々痛い目に遭っているというのに、つくづく懲りない人たちだ。(毎日20000309)

(5)あいまいな計画と経営でずるずる赤字を流している事業は、傷が**深くならない前に**打ち切ることを考えた方がいい。(朝日010128)

아울러 다음 (6)(7)은 明治時代에 간행된 문헌에서 조사한 예문들인데,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현대일본어의 예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動詞)ない前に」의 예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 결과로부터도 「(動詞)ない前に」가 상당히 文語體的인 표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6) 「(前略)折江おばの**死なない前に**、この家からにげだすべきだったよ。チャンスを逸したね」と、康太は笑うのだったが、衿子がこの家にのこりたい気持は、たれにもわからない。(丹羽文雄・顔)

(7) 私の手紙を**読まない前に**、先生がこの電報を打ったという事が、先生を解釈する上に於て、何の役にも立たないのは知れているのに。(夏目漱石・こころ)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일본어 모어화자들 가운데에는 (2) 등과 같은 표현이 비논리적인 표현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화자가 존재한다는 점, ㉡현대일본어에 비해 明治時代 문헌에 (6), (7)과 같은 표현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근거로 「(動詞)ない前に」의 기능이 「~ないうちに」로 대체되는 방향으로 文法化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가정 아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3] 또한 필자는 한국어 母語話者 일본어 학습자들이 「(動詞)ない前に」와 관련해서 범하기 쉬운 ①②와 같은 誤用은 단순히 「(動詞)ない前に」에 국한된 단순한 오용이 아니라, 時間關係節에 관한 韓日 兩 言語 間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3節에서 상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다음 節에서는 한국어의 「~기 전(前)에」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2.2. 한국어의 「~기 전(前)에」에 대해서[4]

拙稿(2009)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전(前)에」節의 경우도 15세기부터 각종 문헌에 일본어의 「(動詞)ない前に」에 대응되는 표현이 존재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5]

(8) 그 드르리로 **法 듣디 아니ᄒᆞᆫ 前에** ᄆᆞᅀᆞ미 제 여러 아라
(令其聽者로 未聞法前에 心自開悟ᄒᆞ야)

(8)은 15세기 중세한국어 자료인 『능엄경언해(楞嚴經諺解) 9:94』에서 인용한 문장으로서 밑줄 친 「法 듣디 아니ᄒᆞᆫ」은 「법을 듣지 않은/않았던」과 같이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으며, 被修飾名詞인 「전(前)」이 관형사절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의 「(動詞)ない前に」에 대응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역사적으로 볼 때 15세기 중세한국어에서는 「아니ᄒᆞᆫ 전(前) / 몯ᄒᆞᆫ 전

3) 연구 성과의 일부를 拙稿(2009) 및 拙稿(2011)에 발표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기 바란다.
4) 이 節의 내용은 拙稿(2009)의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는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또한 익명의 사독자로부터 한국어 및 일본어의 문법화 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아직 간행되지 않은 별도의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본 논문에서는 필요 최소한의 내용만을 기술하는 데 그쳤음을 밝혀둔다.
5) 한국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張允熙(2008)를 참조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前)」과 같이 「否定形+전(前)」의 형태로 사용되었으나, 현대한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 방향으로(즉 「~기 전(前)에」의 형태만이 사용되는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와 일본어의 「(動詞)ない前に」節 과 「~기 前(에)」節은 역사적인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에서 문법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단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일 양 언어 간에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유사점을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간주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 節에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動詞)ない前に」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Ⅲ. 「(動詞)ない前に」의 의미

3.1. 「前(に)」節에 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

본 節에서는 「(動詞)ない前に」도 「前(に)」節의 하나이므로 「前(に)」節에 관한 선행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6)]

「前(に)」節과 관련해서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相對時制(relative tense)라는 시간성(temporarity)의 문법범주(grammatical category)로 설명하고 있다.

> "「(する)マエ節」における「スル形」は、主節との時間的な前後関係を示す。"
> (三原(1992), 竹沢(1993), 工藤(1995) 等)

(9) 夜が明ける前に 目が覚めた。
S1 S2 (S ; Sentence)

6) 본 논문에서는 「~ない前に」를 구성하는 「ない」도 기본형의 한 형태(즉 「する」의 한 형태)로 간주한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선행연구의 주장에 따르면, (9)는 「夜が明ける(날이 밝다)」라는 사태(Event)와 「目が覚める(잠에서 깨다)」라는 사태의 시간관계가 「前(まえ)」節로 표현된 문장이며, 이와 같은 「(する)前に」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인용문의 내용과 같이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9)는 「夜が明ける(날이 밝다)」가 나타내는 主節 시제를 기준으로 「目が覚める(잠에서 깨다)」라는 사태가 후속해서 일어난다는 상대시제로 설명 가능하다는 것이다. 「明ける」는 「スル」, 즉 主節에서는 非過去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相對時制로는 주절이 나타내는 사태보다 이후에 일어나는 후속사태(後続事態)(=繼起關係)를 표현한다는 것으로 <表1>과 같이 요약할 수 있겠다.

<表1>

●「S1 前(に), S2」節의 의미 「S1 前(に), S2」節은 시간적으로 「S2 → S1」과 같은 순서로 일어난다.

다음으로는 前述한 (2)를 다음과 같이 必須 論項(argument)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재구성하여, (9)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2)子供に**お金を払わない前に**菓子を食べさせる。
「S1(お金を払わない)」- 前に -「S2(子供に菓子を食べさせる)」

<表1>에 따르면, (2)는 「S2(子供に菓子を食べさせる) → S1(お金を払わない)」와 같은 시간적인 繼起關係를 나타내는 의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같은 해석은 부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즉 한국어로 직역하면, 「돈을 내지 않기 전에 아이에게 과자를 먹인다(=아이에게 과자를 먹이고 나서 돈을 내지 않는다)」와 같은 문맥에 맞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의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夜が明ける前に目が覚めた。
「S1(夜が明ける)」- 前に -「S2(目が覚める)」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편 (2)와는 대조적으로 (9)는 전술한 바와 같이 『S2(目が覚める) → S1(夜が明ける)』와 같은 시간적인 繼起關係가 성립된다. 즉 「날이 새기 전에 잠에서 깨다(=잠에서 깬 다음에 날이 새다)」와 같은 해석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 해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와 (9)의 비교를 통해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의 <表1>과 같은 일반화는 부분적으로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적어도 (2)와 같은 『前(に)』節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2. 본 논문의 주장

필자는 時間關係를 나타내는 『S1 前(に), S2』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3.2.1節과 3.2.2節을 참조). 또한 『前(まえ)』는 기본적으로 名詞이므로 구체적인 시간을 지시한다고 생각한다. 즉 「(문맥에서 주어지는 기준 시간보다) 일정한 시간만큼 과거(이전)의 어느 때」를 지시하는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7)]

(10)(外務省の現状は)悪くなっていると言えば、語弊があるが、**前より**防御的になっている。(毎日040414)

지극히 당연한 내용이지만, (10)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前(まえ)』는 구체적인 시간(일정한 시간만큼 과거의 어느 때)을 지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10)과 같은 문장에서는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S1 前(に), S2』節을 구성하는 『前(まえ)』는 고유한 의미가 없다(또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시간관계를 나타내는 『S1 前(に), S2』節의 의미를 단순히 『S2 → S1』와 繼起關係로 파악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S1 前(に), S2』節을 구성하는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도 같이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7) 橋本(1997)에도 동일한 내용의 지적이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2.1. 事態의 時間關係(前後關係)를 판단하는 基準(時)点이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

(2)子供に**お金を払わない前に**菓子を食べさせる。
「S1(お金を払わない)」- 前に -「S2(子供に菓子を食べさせる)」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되는 (2)와 같은 문장이 이 유형에 속한다. 이 유형의 문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시점을 상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S1(お金を払わない)」事態가 가리키는 시점
Ⓑ「S2(子供に菓子を食べさせる)」事態가 가리키는(일어나는) 시점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

먼저 Ⓐ의「S1」이 가리키는 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본 논문에서 문제가 되는「動詞+ない(払わない 등)」는 상(相, aspect)的인 의미로「未完了」를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 된다.

<發話時 現在를 기준으로 아직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즉 未完了的인) 문맥의 상황>
(11) もうお金を払った？
(11a) いいえ、まだ払っていない。
(11b) いいえ、まだ払わない。

일본어의 경우는 (11)과 같은 제시된 문맥의 질문에 대해서 (11a)와 (11b)가 상(相)적로는 동일한 의미가 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즉 (11)의「もうお金払った？」라는 질문은 해당 동작(돈을 지불하다)이 完了되었는가 아닌가(完了되었는가, 아직 未完了 상태인가)를 묻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 미완료임을 나타내는 답변으로는 (11a)이 가장 표준적인 표현이다. (11b)는 話者의「意志」를 나타내는 의미(아직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를 동반하기는 하지만, 기준 시점에서 볼 때 未完了를 나타낸다는 상(相)적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局面(phase)으로는 동일하다는 할 수 있다.

그렇다면 (2)에서 「S1」이 가리키는 시점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필자는 (2)의 動作主(Agent, 과자를 사기 위해 상점에 들어간 사람)가 상점에 들어갔을 때부터 과자 값을 지불하기 전까지의 시간, 상(相)的으로는 해당 사건이 未完了 狀態인 期間을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2)와 같은 유형의 「S1」은 「(未完了 狀態의)期間, 즉 일정한 길이가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이다. 3.2.2節에서 기술하는 유형과 구별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로, Ⓑ의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이란 무엇일까? 前述한 바와 같이 「前(まえ)」는 時間을 指示하는 名詞이므로 고유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즉 動作主가 과자를 구입하는 상황에서 과자 값을 지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2)에서는 상점에 들어가서 과자 값을 지불할 때까지의 時間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2)는 「과자 대금을 지불하는 시점(기준점) 이전의 未完了 기간」, 동시에 「前(まえ)」가 가리키는 기간 중에 「S2」라는 사태가 일어난다, 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2>

●(2)의 의미(각각 시간관계를 표시함)

Ⓐ S1(お金を払わない)　　⊃　Ⓑ S2(子供に菓子を食べさせる)

‖(시간적으로 동시)

Ⓒ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

(※「⊃」는 「S1」이 가리키는 기간 중에 「S2」사태가 일어남을 표시하며, (2)와 같은 유형에서는 대금을 지불하는 시점(기준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기준점이란 S1과 S2의 전후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가리킨다)

3.2.2. 「前」가 가리키는 시점을 기준으로 「S2 → S1」의 繼起關係를 나타내는 유형

(12) 寝る前に歯を磨いた。

「S1(寝る)」- 前に -「S2(歯を磨く)」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12)의 의미도 (2)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 가지 시점에 대해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이다.

Ⓐ「S1(寝る)」事態가 가리키는(일어나는) 시점
Ⓑ「S2(歯を磨く)」事態가 가리키는(일어나는) 시점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

(12)에서 Ⓐ의「S1」이 가리키는 시점은 (2)의 경우와 달리 화자가 사태의 時間關係(前後關係)를 인식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한편 Ⓒ의「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은 기준점인「S1」보다 일정한 시간만큼 과거(이전)의 시점을 가리킨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2)는「話者가 사태의 時間關係를 인식하는 기준점인「자는 시간」보다 일정한 시간만큼 이전인 시간, 즉「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에「이를 닦는다」라는「S2」가 일어난다, 라는 의미가 된다.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表3>

- (12)의 의미(각각 시간관계를 표시함)

Ⓒ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
‖(시간적으로 동시)
Ⓑ S2(歯を磨く) > Ⓐ S1(寝る)

(※「>」는「S2」가「S1」보다 시간적으로 先行해서 일어남을 표시하며, Ⓐ의「S1」은 화자가 사태의 시간관계를 인식하는 기준점의 기능을 한다)

또한 (12)와 같은 유형에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의「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과 관련해서 기준점보다 어느 정도 이전의 시간을 표시하는가, 라는 사회 통념적인 상식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12)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자기 전에 이를 닦는 상황」에서 기준시점(자는 시간)보다 어느 정도 이전에 이를 닦는가 하는 것은 언어학에서 문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가 되는 言語能力(competence)과는 무관한 사회 통념적인 상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자기 직전에 이를 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S1」이 가리키는 시점의 직전(또는 그다지 사이가 벌어지지 않은 시간)에 「S2」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ないうちに」와의 교체 가능 여부로 확인할 수 있다.

(12) 寝る前に歯を磨いた。
(12a) ??寝ないうちに歯を磨いた。

(12a)는 다양한 문맥을 가정한다면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예문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부자연스러운 예문이 된다.

"「うちに」"
(~前略)(ウ)ある限られた時間の範囲内にある意を表す。
「日の**暮れないうちに**(暮れる前に)帰ろう。」
「**温かいうちに**召し上がれ。」
(北原保雄編(2003)『明鏡国語辞典』大修館書店(p. 155))

위 인용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うちに」는 일반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시간의 범위 내(순간적인 점으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일정 시간 지속되는 시간으로서의 기간)」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12a)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은 前述한 (9)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9) 夜が明ける前に 目が覚めた。
「S1(夜が明ける)」- 前に -「S2(目が覚める)」

(9)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12) 유형과 마찬가지로 <表4>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表4>

●(9)의 의미(각각 시간관계를 표시함)

Ⓒ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

∪ (시간적으로 포함됨)

Ⓑ S2(目が覚める) > Ⓐ S1(夜が明ける)

(※「>」는 「S2」가 「S1」보다 시간적으로 先行해서 일어남을 표시하며, Ⓐ의 「S1」은 화자가 사태의 시간관계를 인식하는 기준점의 기능을 한다)

(9)와 같은 유형은 (12)의 경우와 달리, 「날이 밝기 전에 잠에서 깨는 상황」에서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이 「S1」의 기준 시점(날이 밝는 시간)보다 어느 정도 이전의 시간을 표시하는가, 라는 관점에서 (12)와 相異하다는 것이다. 즉, (12)는 「S1」이 가리키는 시점의 직전(또는 그다지 사이가 벌어지지 않은 시간)에 「S2」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9)의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은 사회 통념적으로 볼 때 「일정한 길이가 있는 시간」으로 인식된다는 사실이다. (9)의 의미는 반드시 날이 밝기 직전에 잠에서 깨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아닐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내용일 것이며, (12)의 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길고 일정한 시간적인 길이가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다음과 같은 「~ないうちに」와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9) 夜が明ける前に目が覚めた。

(9a) 夜が明けないうちに目が覚めた。

3.3. 한국어의 「~기 전(前)에」가 나타내는 의미 再考

2.2.節에서는 한국어의 「전(前)에」節에 관해, (8)과 같은 예문의 존재를 근거로 역사적인 문법화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3절에서 기술한 내용, 즉 <表2, 3, 4>의 내용을 감안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한국어의 「전(前)에」節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어의 (2)와 같은 유형(즉 (8)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9)와 (12)의 구별도 없어지는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바꾸어 말하면, 현대한국어의 「전(前)에」節은 話者가 해당 사태의 時間關係를 인식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기준점)만이 문제가 되는 <表5>와 같이 일원화된 의미를 나타낸다.[8)]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가령 일본어와 같이 「동사의 관형형(하는)+전(前)에」와 같은 형태가 되었을 때, 「하는」은 현재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명사화되는 방향으로 문법화된 것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과제로 삼겠다.

(13) 날이 밝기 전에 눈이 떠졌다.
「S1(날이 밝다)」- 前に -「S2(눈이 떠지다)」

<表5>

•(13)의 의미(각각 시간관계를 표시함) Ⓒ 前(전)가 가리키는 시점 ‖(시간적으로 동시) Ⓑ S2(눈이 떠지다) > Ⓐ S1(날이 밝다) (※「>」는 「S2」가 「S1」보다 시간적으로 先行해서 일어남을 표시하며, Ⓐ의 「S1」은 화자가 사태의 시간관계를 인식하는 기준점의 기능을 한다)

Ⅳ. 결론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의 「~기 전(前)에」와 일본어의 「(動詞)ない前に」를 대

8) 한국어의 「~기 전(前)에」에 관한 문법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拙稿(2009)에 발표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상으로 그 의미 및 기능에 대해 대조 고찰하였다. 고찰 과정에서 각 형식의 문법화라는 관점에서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

고찰 결과, 일본어의 「前(まえ)に」節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유형(여기서는 假稱으로서 (A), (B) 유형으로 부르기로 함)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動詞)ない前に」는 (A)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B) 유형과 관련해서, 「前(まえ)」가 가리키는 시점과 관련된 사회 통념적인 인식의 유형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다. 「前(まえ)に」節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유형

「前」가 가리키는 시점과 「S1」이 시간적으로 同時임을 나타내는 유형(事態의 時間關係, 즉 前後關係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基準点이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형).

(예) 子供にお金を払わない前に菓子を食べさせる。(=(2))

(B)유형

「前」가 가리키는 시점을 기준으로 「S2 → S1」의 繼起關係를 나타내는 유형(事態의 時間關係, 즉 前後關係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基準点이 제시되어 있으며, 「前」가 가리키는 시간이 点的인가 일정한 期間을 나타내는가에 따라 두 가지 하위분류가 가능한 유형)

(예) 寝る前に歯を磨いた。(「~ないうちに」로 교체 불가능한 유형)
(예) 夜が明ける前に目が覚めた。(「~ないうちに」로 교체 가능한 유형)

참고문헌

● 한국자료

安平鎬・田恵敬(2008)「現代日本語における「~代わりに」構文について―「~する代わりに」と「~しない代わりに」の交代現象を中心に」『日本語文学』, pp.97-112.

安平鎬(2009)「「~ないまえ(前)に」節と「~기 전(前)에」節―日韓対照を中心に―」『韓国日本学聯合会第7回学術大会及び国際シンポジウム予稿集』(2009. 7. 3)

安平鎬(2011)「時間関係節に関する日本語教育において考慮すべき点―韓国語母語話者の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場合を中心に―」『日本語教育』韓国日本語教育学会, pp.105-116.
張允熙(2008)「'전(前)'의 内包文 構成의 文法史」『語文研究』36-1, pp.85-104.

● 일본자료
井島正博(1991)「従属節におけるテンスとアスペクト」『東洋大学日本語研究』4, pp.13-57.
岩崎卓(1994)「ノデ節・カラ節のテンスについて」『国語学』179, pp.(左)1-(左)12.
岩崎卓(1999)「マエ節・アト節内のル形・タ形について」『光華日本文学』7, pp.15-29. 京都光華女子大学.
河上誓作(1986)「「マエニ」の前の肯定と否定」『日本語・日本文化研究論集』3, pp.1-36. 大阪大学文学部共同研究センター.
北原保雄編(2003)『明鏡国語辞典』大修館書店.
工藤真由美(1995)『アスペクト・テンス体系とテクスト』ひつじ書房.
竹沢幸一(1993)「日本語の時の副詞節の統語的特性に関する一考察」『個別言語学における文法カテゴリーの一般化に関する理論的研究(平成4年度筑波大学学内プロジェクト研究成果報告書)』筑波大学文芸・言語学系.
橋本修(1995)「相対基準時節の諸タイプ」『国語学』181, pp.15-29.
橋本修(1996)「引用節の基準時」『文芸言語研究・言語篇』29.
橋本修(1997)「マエ・アト節のトキ解釈」『文芸言語研究・言語篇』32, pp.49-60.
三原健一(1992)『時制解釈と統語現象』くろしお出版.

❖ 투고일 : 2011.12.31
❖ 심사일 : 2012.01.27
❖ 심사완료일 : 2012.02.02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